

## 건설기술개발 장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오늘날 건설산업은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설 수요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만족시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 인력난과 자재난에도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국내 건설 시장이 개방되면 건설업체들은 선진 외국 건설업체와 무차별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해외 건설시장의 경우에도 시장이 기술 집약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후발 개발도상국의 건설시장 잠식이 예상된다.

결국 국내외 건설 시장은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으로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공법 개발, 공사의 기계화 및 자동화, 신소재 개발 등의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업계의 기술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건설산업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반 제조업과 달리 수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투자비의 조기 회수가 어렵다는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건설 기술 개발에 관한 한 정부의 장려제도 역할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현행의 건설기술개발 장려제도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는 현재의 건설기술개발 장려제도(기술투자권고제도, 신기술지정제도, 공사 과정에서 신기술적용보상제도)의 문제점을 각 제도의 추진 실적과 그에 따른 업계의 애로점을 근거로 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문제점이 추진상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제도 자체상의 문제인지를 논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각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정책 당국에 인지되어 건설업체로 하여금 국제적 가격 경쟁·품질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할 수 있는 정부의 건설기술개발 장려제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